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KROSS



CONTENTS

1	The First Mover	1
2	산학협력단 조직개편	3
3	해외 산학협력 동향	6
4	2025년 상반기 연구비 수주 실적	9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12

The First Mover



1 The First Mover #1/2

산학협력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수익모델 개혁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역량 집중

THE FIRST-MOVER

외연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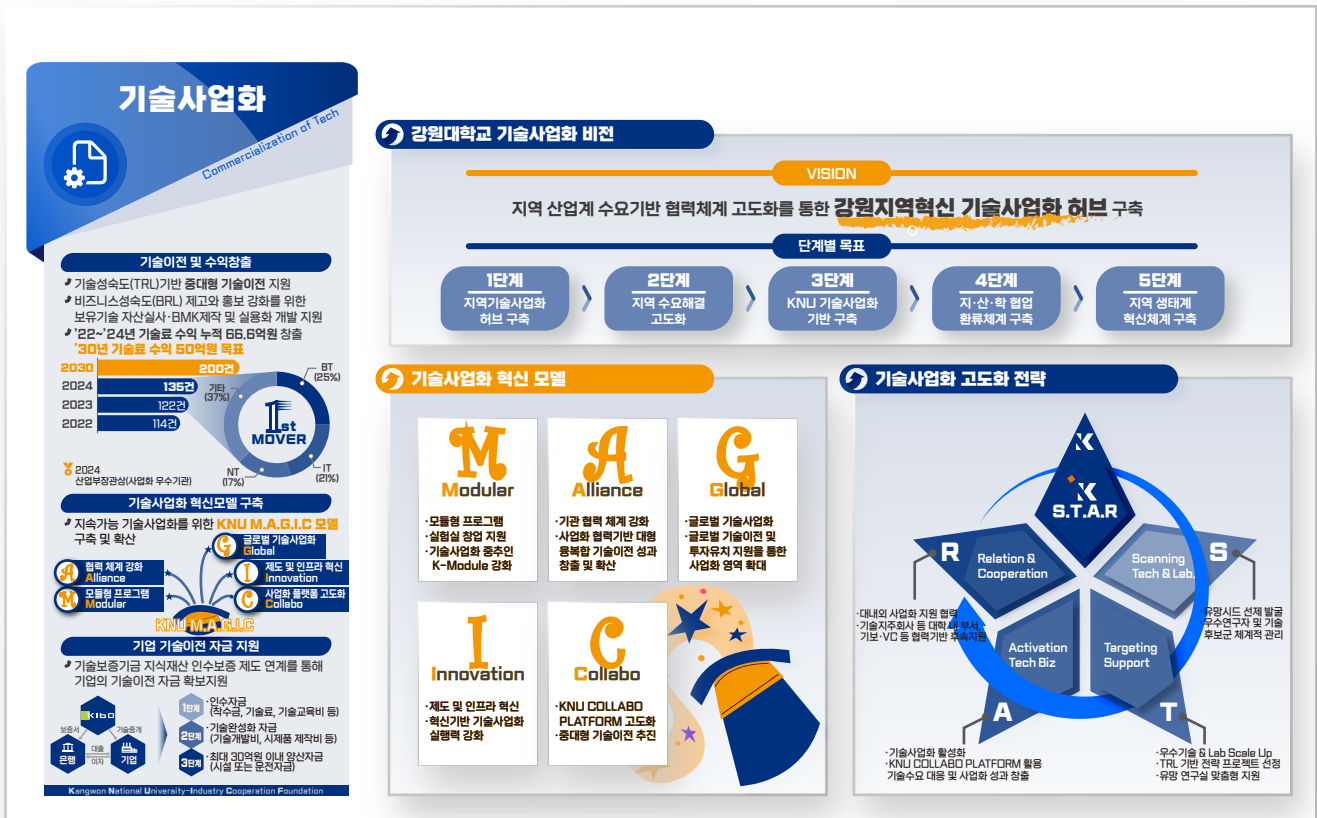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장기 수익모델 구축을 통해 대내외 산학협력 환경변화와 미래 재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립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중장기 산학협력 수익모델인 “THE FIRST-MOVER STRATEGY”를 통해 단계별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새로운 정책 및 환경변화와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략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①연구가치 기반구축 ②기술사업화 ③창업·기업지원 ④투자·기업 확장 ⑤후속 지원의 단계를 ①연구가치 확산 ②기술사업화 ③기술창업 지원 ④투자 및 기업 성장 ⑤글로벌 연계 및 투자 확장으로 고도화·재구성하고 단계별 세부전략을 제시한다. “THE FIRST-MOVER STRATEGY”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비전공유와 핵심 가치 내재화하는 동시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수익다각화 방안으로 기대받고 있다. 또한 강원1도1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역의 기대 충족과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의 측면에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역량을 강원지역 산학협력 유관기관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는 위축된 지역 산학협력의 활성화 전환과 동반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FIRST-MOVER STRATEGY”는 대학이 보유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기반으로 하며 대학의 자체 사업화 외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전략을 세분화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화 기반구축→초기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히든 챔피언의 총 5단계로 분류되는 기업성장 단계 파악을 위해 대상기업의 BRL(Business Readiness Level)+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발성 성과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이 아닌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공간지원, 전문가(지정형 산중교수, 투자전문가 등) 컨설팅,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와 기업특례상장을 위한 지원까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기업 M&A 지원으로 경영효율화와 위험분산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목적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해외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지원을 확장하고, PoC+PoB의 지속 검증을 통해 후속지원도 가능성도 담았다. 기업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부터 지원·연계·확장 등의 전과정은 KNU COLLABO PLATFORM 내에서 작동하고 관리·저장된다.

산학협력의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노력을 주목해 볼만하다.



* 자세한 내용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uicf.kangwon.ac.kr>) 확인 가능

산학협력단 조직개편



2

산학협력단 조직개편 #1/3

최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단순한 연구비 관리 및 기술 이전 기능을 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이자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동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술 융복합의 가속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 전환은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한 기존 조직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조직개편은 이러한 배경 하에 산학협력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 및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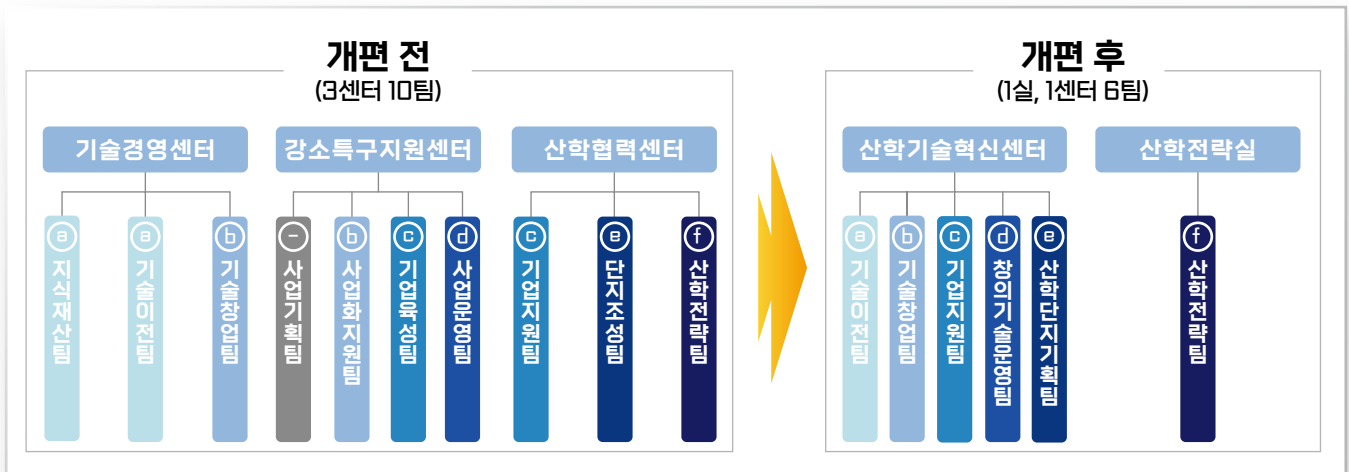


①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기능의 집중 및 전문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센터의 통합 및 팀의 재배치이다. 기존의 기술경영센터와 강소특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산학기술혁신센터’**를 신설한 것은 대학의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강소특구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기술의 발굴, 평가, 이전, 사업화, 그리고 특구 연계라는 일련의 과정이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산학기술혁신센터’ 수행 사업(8개)

- ¹⁾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²⁾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³⁾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 ⁴⁾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3.0), ⁵⁾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 ⁶⁾공공IP 사업화 지원사업, ⁷⁾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⁸⁾K-하이테크 플랫폼



㉔ 유사 업무 팀 통폐합 및 단장 직속 '산학전략실' 신설

기존 산재되어 있던 유사 업무 팀들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팀의 전문성을 심화한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 기업지원팀과 기업육성팀을 **'기업지원팀'으로 통합**하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 기술창업팀과 사업화지원팀을 **'기술창업팀'으로 통합**하여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더욱 강력히 지원한다.
- 지식재산팀과 기술이전팀을 **'기술이전팀'으로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의 확보부터 실제 기술이전 및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사업기획팀은 폐지**하고, 그 소관 업무를 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기업지원팀, 기술창업팀, 기술이전팀으로 분산함으로써, 기획 기능이 각 현업 팀에 내재화되어 보다 실행력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단지조성팀을 **'산학단지기획팀'으로**, 사업운영팀을 **'창의기술운영팀'으로** 변경하여, 변화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점도 조직의 방향성을 가시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산학협력단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 협력 및 홍보를 총괄하는 **단장 직속 '산학전략실' 신설**이다. 이는 산학협력단 전체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략 수립과 실행 간의 괴리를 줄이고, 산학협력단 전체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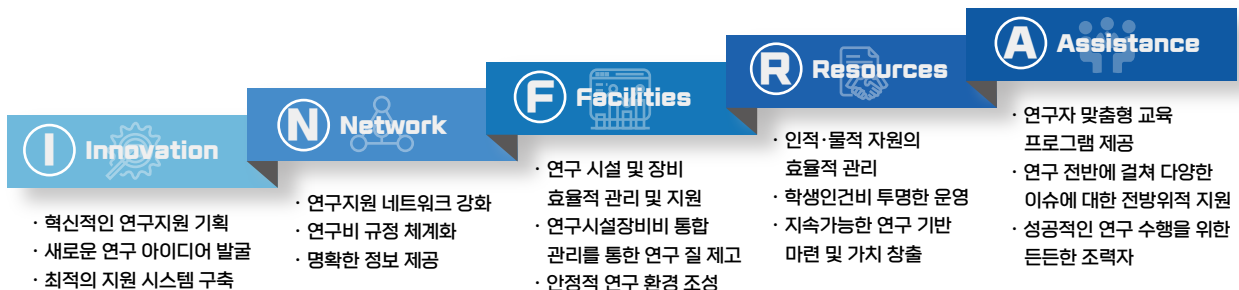
산학협력단 조직개편 #3/3

㉔ 연구 인프라 지원 강화 및 RISE 사업단 인력 파견

이번 개편에서는 연구지원 업무의 재분장을 통한 연구인프라 지원 및 관리 업무 강화가 눈에 띈다. 기존 연구장비재정사업팀은 ‘연구인프라팀’으로 개편되었다. 연구비 규정 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행정 아카데미 등 연구 인프라 및 기획 업무를 연구인프라팀으로 집중하고, 기존 연구장비재정사업팀의 연구비 집행 업무는 타 연구비 집행팀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RISE 사업단의 정식 출범에 따라 산학협력단 직원 4명(팀장급 2명, 선임급 2명)을 파견한 것은,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강력한 기여 의지를 보여준다. 핵심 인력의 파견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연구인프라팀’ 신설



산학협력단의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성 증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산학기술혁신센터’를 통한 기술사업화 기능의 집중과 ‘산학전략실’을 통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그리고 ‘연구인프라팀’을 통한 연구 지원 환경의 고도화는 강원대학교가 변화하는 산학협력 패러다임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RISE 사업단으로의 인력 파견은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직개편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의 안착과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번 혁신적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해외 산학협력 동향



3

해외 산학협력 동향 #1/3

2025

DIVE in CHINA



난징시 개요 (2023 기준)

- 면적: 6,587 km²
- 인구: 934백만명
- 지역GDP: 1조 8,500억 위안(한화 351조 8,330억원)
- 월 평균임금: 11,355 위안(한화 215만원)
- 대표기업: 남경철강, 쑤닝 상업그룹, NARI, 팬다전자, 양쯔석유화학 등
- 한국기업: LG(배터리, 파워트레인),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삼성(반도체) 등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글로벌 산학협력 확장과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거점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중국 난징시를 방문했다. 이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DIVE in CHINA 2025'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중국과의 글로벌 업무를 협업하고 있는 **강소한거과학기술유한공사**와 강원춘천강소연구개발 특구 내 입주기업 (하울바이오, 비네이처바이오랩 등 7개사)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난징시의 리수이구(溧水区, Lishui District), 장닝구(江宁区, Jiangning District), 가오춘구(高淳区, Gaochun District) 관계자 기업지원 정책 소개, 산업원 및 현지 기업방문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협의를 추진했다.

난징시는 2017년 산업최적화 및 혁신을 위한 '4+4+1 산업체계'를 발표한바 있으며, 2020년 이를 기반으로 '신약 및 생명건강 산업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통해 산업체계 구체화와 연구기반을 공공히 하고 있다. 또한 난징시는 4대 대학 도시(센린·푸커우·장닝·리수이 대학타운)를 중심으로 교육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공항·철도·고속도로의 발달로 교통과 무역의 메카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21년 기준, 난징은 1만개 이상의 외자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 중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포함된 80개사 이상*이 난징에서 약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당해연도 외자투자액은 50억1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 독일 BASF 그룹·지멘스·바이엘·티센크루프, 프랑스 까르푸·오상, 네덜란드 셀·필립스, 영국 BP·테스코, 스웨덴 에릭슨, 이탈리아 피아트, 미국 포드·베스트바이·킴벌리클라크 등

난징은 중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손꼽히며, 이에 걸맞게 난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 지원



- ① 외국계 기업·기관, 연구소 설립 지원금 200~500만 위안(한화 약 3.8억~9.5억원)
- ② R&D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 시 관세·부가세·소비세 면제
- ③ 중국 장비 구입 시 부가세 전액 환급

외국인 인재 지원



- ① 외국인 창업기업 R&D 지원금 최대 1,000만 위안(한화 약 19억원)
- ② 외국인 창업기업 VC 투자유치 시 후속투자 최대 1억 위안(한화 약 190억원)
- ③ 유망 외국인 인재의 근로형 거주 허가 최대 5년



외국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지원

- ① 창업보조금 최대 500만 위안(한화 약 9.5억원), 3회 분할 지급

장닝구(江宁区, Jiangning District)

- 면적: 1,560 km²
- 인구: 198만명
- 도시화율: 78.5%
- 지역GDP: 3,181억 위안(한화 60조 7,857억원)
(1차 산업 2.6% / 2차산업 54.0% / 3차산업 43.4%)
- 주요산업: -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차, 첨단IT, 첨단서비스

양쯔강

장닝구

리수이구(溧水区, Lishui District)

- 면적: 983 km²
- 인구: 51만명
- 도시화율: 66.5%
- 지역GDP: 1,034억 위안(한화 19조 7,667억원)
(1차 산업 5.1% / 2차산업 52.3% / 3차산업 42.6%)
- 주요산업: 첨단 제조, 농업 하이테크, 신에너지, 헬스케어

리수이구

까오춘구(高淳区, Gaochun District)

- 면적: 790 km²
- 인구: 43만명
- 도시화율: 60.0%
- 지역GDP: 590억 위안(한화 11조 2,749억원)
(1차 산업 8.6% / 2차산업 41.3% / 3차산업 50.1%)
- 주요산업: 농업(전통+생태), 경공업, 관광산업(국제 Slow City)

까오춘구



3

해외 산학협력 동향 #3/3

기업친화적 도시 난징의 대학 도시 형성도 주목해 볼만 하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융복합 연구-산업-문화-정주 인프라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난징의 원대한 꿈을 실현한 것이다. 난징의 대학도시는 크게 ①치사구 셴린대학타운, ②푸커우구 푸커우대학타운, ③장닝구 장닝대학타운, ④리수이구 리수이대학타운으로 구분되며 타운별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명칭	위치	조성시기	대표 대학	면적	특징
셴린대학타운 (仙林大学城)	치사구 (栖霞区)	2002년	난징대학교 난징사범대	약 47km ²	· 바이오·AI·ICT 중심 연구 · 창업센터, 과학기술기금 운영 · 대학+도시 예술제 공동 개최
푸커우대학타운 (浦口大学城)	푸커우구 (浦口区)	1988년	난징농업대 난징공업대	약 20km ²	· 농업기술 중심 연구 · 대학-공공기관 협력 활발
장닝대학타운 (江宁大学城)	장닝구 (江宁区)	2002년	동남대 남항공대	약 27km ²	· 공학·의료·약학 중심 연구 · 최대규모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리수이대학타운 (溧水大学城)	리수이구 (溧水区)	2020년	난징공업대 난징예술대	약 12km ²	· 예술·디자인·생태산업 융합 · 문화·관광산업 연계 발전 추진

난징의 대학도시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집적 공간을 초월해 지역 산업·문화·정주·교통·도시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된 다기능 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학클러스터 모델로서 관련 정책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봄직하다.

도시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R&D→기술사업화→기술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작동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연 환경과의 조화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생태산업 융합, 문화·생태관광 산업 연계 등 생태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난징의 대학도시는 지역의 산업·자연·문화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선도하고 지역 산업의 구심점이 되고있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산업과 문화·자연 특성까지 고려한 대학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해야 하며, 산학협력 생태계 구성에 있어 대학-지자체의 공동기획·협업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역량 확대도 노력해야 한다.

상반기 연구비 수주 실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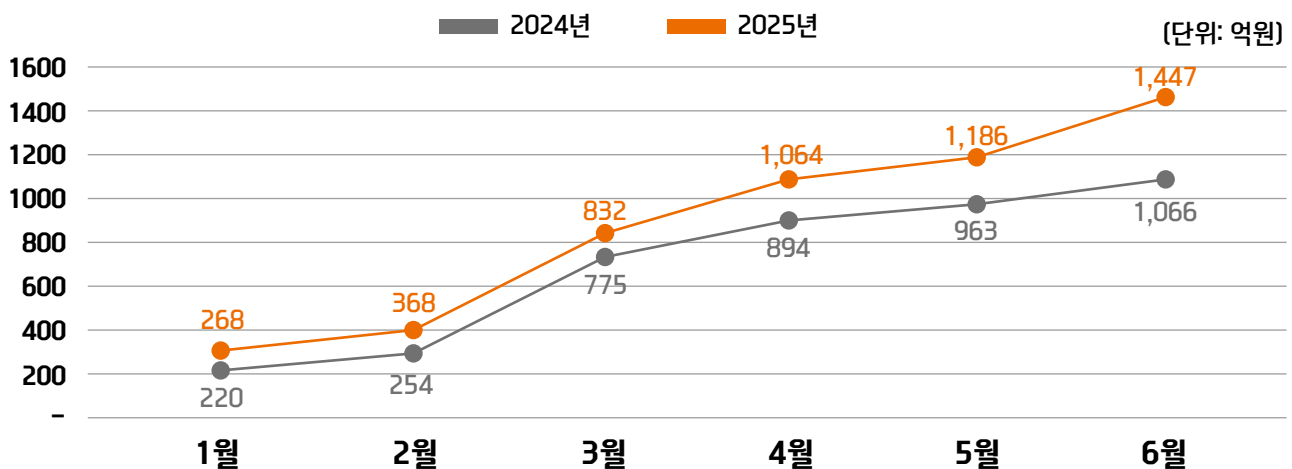
2025 상반기 연구비 수주 실적 ^{#1/3}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주 실적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변화(RISE 체계 전환 등)와 국가 R&D 투자 방향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적 안정성과 연구 활동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25년 상반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주 실적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산학협력단의 전략 수립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상반기(1월~6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월별 연구비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정 월에는 실적 변동이 관찰되었다.

2025년 상반기 총 연구비 수주액은 **144,741백만원**으로, 2024년 동기의 106,575백만원 대비 **약 35.8% 증가**하였다.



2025년 상반기 총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유의미한 증가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특히 4월과 6월에는 각각 23,189백만원, 26,123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특정 대형 사업 수주 또는 다수 과제의 동시 계약 체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3월에는 46,365백만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의 52,093백만원 대비 소폭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사업 공고 지연 또는 경쟁 과제 증가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월별 등락은 연구비 수주 특성상 과제 계약 시점의 유동성에 기인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연구비 수주 실적을 중앙부처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 부처의 수주액 증가가 전체 실적 견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 부처별 연구비 수주액

(해당연도 1월~6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4년 대비 증감액(비율)
교육부	32,749,499	59,468,486	26,718,986 (+81.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831,415	36,759,339	7,927,924 (+27.50%)
산업통상자원부	5,183,604	8,243,446	3,059,842 (+59.03%)
중소벤처기업부	8,579,909	8,040,017	-539,891 (-6.29%)
농림축산식품부	3,150,818	4,470,468	1,319,650 (+41.88%)
농촌진흥청	3,523,550	4,452,250	928,700 (+26.36%)
환경부	5,922,350	4,004,994	-1,917,356 (-32.37%)
보건복지부	3,222,138	3,845,794	623,656 (+19.36%)
산림청	2,266,713	2,971,997	705,284 (+31.11%)
지방자치단체	2,089,263	2,138,597	49,333 (+2.36%)
기타	11,055,888	10,346,155	-709,733 (-6.42%)
합 계	106,575,150	144,741,545	35,442,876 (+35.81%)

• (교육부 사업비 약 267억원 증가)

- LINC3.0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 약 53억원 감소하였으나 강원RISE사업,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신규 수주로 약 297억원 증가하였다.
- 단, 신규과제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이공학 개인연구 지원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 창의도전 연구기반 등)」은 전년대비 약 20.2억원 감소하였다.

• (과기부 사업비 약 79.2억원 증가)

- 신규 사업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수주로 23.7억원 증가하였으며, SW중심대학, 기초연구실,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으로 약 41.1억원 증가하였다.
- '24년부터 「기본연구지원사업」이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로 전년대비 14.1억원 감소하였으나, 「중견연구지원」, 「우수신진연구」 등 약 33.2억원 증가 등으로 '개인기초연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4

2025 상반기 연구비 수주 실적 #3/3

2025년 상반기 연구비 수주 실적은 하반기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대학 전반의 연구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 수주 실적 증가는 산학협력단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비가 증가함에 따라 간접비 징수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산학협력단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확보된 간접비는 연구 인프라 확충, 연구 지원 시스템 고도화,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순환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번 조직개편은 간접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연구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해 연구 생산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연구비 수주 증가는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잠재력을 내포한다. 활발한 연구 활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는 곧 특허 출원 및 등록 증가로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연구비 수주 증가는 간접비 확대를 통한 운영 안정화, 그리고 특허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25년 상반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약 33.1% 증가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교육부 RISE 사업과의 연계 및 전략적인 중앙부처별 대응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비 징수액 증가를 통한 재정 안정화 및 기술이전, 특허 실적 향상이라는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래 산학협력 모델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지역과 함께 꾸는 하나의 꿈, 미래산업 글로벌 리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터뷰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1/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며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은 산학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호부터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가까이서 전하고자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 인터뷰’ 코너를 새롭게 시작한다.

각자의 업무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고민, 조직과 일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나누며,

구성원 간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응원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산학협력단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첫 번째 문을 열며, 이번 호에서는 스타트업 큐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학기술혁신센터 권혜인 사원의 이야기를 전한다.

함께 꾸는
하나의

글로벌리더, 강원대학교

산학기술혁신센터
기술이전팀 | 권혜인 사원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직원인터뷰의 첫 번째 주자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산학기술혁신센터 기술이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혜인 사원입니다.

2023년도 2월말에 입사하여 현재 2년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직원인터뷰'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많이 떨리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술이전팀은 올해 6월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존 기술이전팀과 지식재산팀이 합쳐진 팀으로 최세훈 팀장님을 중심으로 박윤미 선임, 김용섭 주임, 김선우 주임, 그리고 저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관리·고도화', '기술이전 마케팅·계약체결'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팀장님의 리더십 아래 팀원 모두가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외에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캐릭터)이 있을까요?

'발 빠른 막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ㅎㅎ

업무 전달이나 요청 사항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작은 일이라도 먼저 챙겨두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사무실 자리에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 공기청정기

- 특징① 3중 필터(헤파, 활성탄)
② 인형과 매칭 잘됨
- 크기 170 x 101(mm)
- 무게 465g
- 전원 USB C type



토끼 키링

- 특징① 핑크핑크
② 출근 싫어함(?)

곰두리 달력

- 특징① 빠곡한 평일 일정
② 가지런한 필기

유선 키보드

- 특징① 쿨톤
② 경쾌한 타이핑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공기청정기! 최근 큐브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뒤, 다소 쑥쑥한 공기가 신경쓰여 마련해 보았는데 앞에 놓인 인형과도 은근히 잘 어울려 소소한 힐링 포인트가 됩니다.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기도 하고, 물건은 꼭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파워J"라 책상을 잘 정돈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3/5

졸업하자마자 산단에 입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본가가 인천이지만 대학시절의 추억이 많은 춘천에 더 머물고 싶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산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기업,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제 전공과도 연관성이 있어 의미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졸업식 날,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의 추천 이전에도 원래 산학협력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대학시절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할 때 산학협력단에 방문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고, 학교 안에 있는 행정기관 중 한 곳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입사 지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산단을 직장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있다면 산단의 최대 장점은요?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다.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맞춤형 복지비, 자기주도학습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 조직에 적응하기 수월했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일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같은 강원대이지만, 학생 시절 통학하던 때와 직장인으로 출근하는 지금은 어떤점이 다른가요?

같은 공간이지만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학생시절에는 수업에 빠지는 등 한결 자유롭게 학교에 다녔지만,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없다는 사실도 새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퇴근길에 캠퍼스를 걷다보면 문득 떠오르는 추억 덕분에 웃음 지을 때가 있어 참 좋습니다.

산단에서도 많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23년 2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 후, 같은 해 5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면접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중 팀장님께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셔서, 회식 자리에서 팀원 모두가 눈물을 터트렸는데 알고 보니 축하를 위한 깜짝카메라 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큼 팀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정이 쌓였던 소중한 순간이네요.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4/5

업무하면서 힘들었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동안 여러 사업에 참여해 왔지만,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준비하며 촉박한 일정 속에 바쁘게 움직였고 주말에도 자료를 반복해서 보느라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종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뿌듯했고, 짧지만 몰입했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IP 사업화 자립 지원 사업은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이전을 활성화하고, 확보한 수익을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여 자립형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직장인 권혜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 원동력은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매일의 업무속에서 작게나마 해낸 일들이 쌓이다보면 결국 더 큰 성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장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 창업지도사를 포함해 약 8개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또한 작은 성취의 일환인 것 같아요.



산학협력단 또는 팀에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크게 건의할 사항은 없지만, 다른 팀과 조금 더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백관에 있을 때도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와 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업무 관련이 없는 팀과는 친해질 기회가 없는 부분이 아쉬웠는데, 큐브로 자리를 옮기고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단장님과의 팀 식사처럼 분기나 반기에 한번이라도 랜덤 팀 매칭으로 다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산학협력단 이야기 - 직원인터뷰 #5/5

퇴근 후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또는 취미생활이 있나요?

음식에 진심인 편이라 퇴근 후 레시피를 찾아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시간이 큰 즐거움입니다. 가끔은 안주를 만들어 간단히 즐기기도 하고, 자신 있는 요리는 등갈비찜, 수육, 콩불 입니다. 최근에는 헬스를 시작하며 다이어트 식단에도 관심이 생겨 운동 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군요! 첫 주자로 참여하신 인터뷰는 좀 어떠셨나요?

첫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 직원인터뷰 코너를 통해 산학협력단 구성원들의 생각과 각 팀의 업무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직원인터뷰 대상자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이 인상적인 융역과제팀의 김정아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입사 시기는 다르지만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6년지기 친구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자극을 주는 동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권혜인 사원의 담담한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조직을 향한 애정이 스며있다. **산학협력단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직원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모일 때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직원 인터뷰로 **소중한 마음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따뜻한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 장철성(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편집인 :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실

Tel 033.250.8283 **E-mail** kim0517@kangwon.ac.kr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2~4층